

2022 개정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지리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과제

김혜숙* · 조철기** · 김병연***

The Direction and Task of Developing the Geography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Restructuring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HyeSook Kim* · Chul-Ki Cho** · Byung-Yeon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기초가 되는 연구 결과를 알리고, 이 연구 과정에서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쟁점은 무엇이었고, 그러한 쟁점이 어떻게 해결되어 주요 성과로 나타났으며 미진한 점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지리교육계에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진이 명시적으로 주장하여 이루어내고자 노력했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에서 영역별 각 1개 과목씩 4개 과목으로 균형 개발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바를 이루어내었다. 둘째, 일반선택 과목 이외의 진로 및 융합 선택과목에서도 균형 개발을 이루어내고 학교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과목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내실 있는 각론 개발과 향후의 적용 결과를 통해 달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학교 사회를 지리와 일반사회로 과목을 분리하고 교과서도 분책하며,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지리라는 이름을 찾는 것이었다. 과목 분리와 교육과정 편제표 개선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교과서 분책은 고시 전까지 주장해야 할 내용이 되었다. 명시적 주장 이외에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중요한 소득은 지리공동체가 교육과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학교 교육과 학계, 실생활에서 지리가 더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사회 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리교육과정, 지리공동체, 성과와 과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orm the research results that form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hat issues emerged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ields in this research process, and how those issues were resolved and emerged as major outcomes will take a look. In addition, it is to introduce and share the shortcomings and future tasks to the geography education community. The three goals that the researchers explicitly asserted and tried to achieve during th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high school general elective subjects, a balance was created with four subjects, 1 each for each area. In the end, the researchers achieved what they claimed. Second, it was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in career and convergence elective subjects other than general elective subjects and to develop competitive subjects in the school field. It will be known whether this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ight89@kice.re.kr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kcho@knu.ac.kr

*** 다사고등학교 교사(Teacher, Dasa High School), briet@hanmail.net

goal can be achieved through substantial subject curriculum development and future application results. Third,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was divided into geography and general social studies, and textbooks were divided, and the name of the subject was found in the curriculum organization table. The request for separation of subjects and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table was not accepted, and the division of textbooks became a content that had to be claimed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 important income from this study, other than the explicit claims, is that the geographical community has created a basis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regard to curriculum issues. Based on this foundation, geography will be firmly established in school education, academia, and real life in the future.

Key words: restructuring of the curriculum in the social studies group, geography curriculum, geographical community, outcomes and future tasks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7년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교육부 2021a, 2021b, 2021c),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여러 정책 연구를 실시해왔다. 사회교과군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연구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박병기 외(2021)에 의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수행된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것을 새로운 사회과 교육과정 또는 사회교과군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였다.¹⁾ 이후 속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차조일 외, 2021)²⁾를 수행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지리 영역 연구진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여 초·중·고 사회교과군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연구 이외에 여러 정책 연구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지난 2022. 11. 24.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발표(교육부, 2021d)하였다. 12월부터는 총론 교육과정 및 각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정책 연구가 수행되며 2022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과정은 교육과정에 다양한 집단[예를 들면, 교육부, 교육부의 다양한 위원회(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각론조정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등), 총론 연구팀, 사회과의 각 영역 연구진, 학술단체 및 교사 단체, 학부모 및 학생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그야말로 하나의 정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흔히 ‘교육과정 정치학’이라고 한다(조영달, 2001). 그러나 최종적으로 고시된 교육과정에는 그러한 정치적 흔적은 남지 않고, 최종적인 결과만 수록된다.

이에 이 논문의 저자들은 사회교과군 재구조화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내외적으로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여 어떤 것은 성공적으로 헤쳐나갔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했는지, 어떠한 속의 과정을 거쳐 지리 교육과정의 큰 틀이 완성되게 되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기초가 되는 연구 결과를 알리고, 이 연구 과정에서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쟁점들은 무엇이었고 그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주요 성과로 나타났으며 미진한 점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지리교육계에 소개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II. 배경³⁾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미래사회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 강화이다. 이를 위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며,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강화한다. 둘째, 분권화를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

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한다. 셋째,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교육,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며, 중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시기와 방법을 개선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의무편성 시간을 축소한다. 넷째, 학교급 전환 시기의 진로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상급학교 진학하기 전(초6, 중3, 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진로연계하기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업량은 1학점 50분 기준 17(16+1)회에서 16회, 총 이수학점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되었다. 선택과목구조도 개편하였는데,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교·국제교·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을 고려하여 특목고를 중심으로 개설되던 전문교과Ⅰ의 선택과목을 보통교과로 재구조화하고,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며 진로선택과목의 성격을 변경하였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적

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을 위해 현재 수능 과목에 해당하는 ‘일반선택’ 과목의 수를 축소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의 방침이었다.

이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중학교 사회교과군 각 영역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민주시민교육요소 반영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일반선택 과목의 축소 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진로와 흥미를 고려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을 개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교과Ⅰ 국제계열 과목의 재구조화 방안도 함께 다루었다. 이 과정은 단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 각 영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각 영역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III. 주요 연구 결과

1. 교과 역량 및 내용 체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 중의 한 명이 워킹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형미 외(2021)의 연구에서 사회과 지리

< 현행 >		< 개편 방안 >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
	일반선택과목		일반선택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전문	전문교과Ⅰ (특목고)		진로선택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전문교과Ⅱ (특성화고)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과목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그림 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고등학교 과목구조 개편

영역의 역량으로 제시한 결과를 반영하였고,⁴⁾ 온정덕 외(2021)의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 템플릿 양식을 적용하여 지리 영역의 예시안을 만들었다.⁵⁾ 사회교과군의 영역별 교과 역량은 표 1과 같으며, 지리 영역에서 제시한 지리과 핵심역량의 구체적인 의미는 표 2와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의 다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하나의 표로 제시되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내용 체계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각각의 템플릿으로 구성된다. ‘지식·이해’는 사회교과군의 각 영역별로 하위 영역을 4개 이내로 구성하며, ‘핵심 주제’, ‘핵심 주제 관련 내용 또는 일반화 진술문’을 두었다. ‘지식·이해’는 학년군별로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과정·기능’은 학교급별로 제시하고, ‘가치·태도’는 영역별로 제시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템플릿의 예시안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지식·이해’의 사회교과군의 영역별 하위 영역 구분을 4개 이내로 하라는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하고,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영

역 중 ‘장소와 지역’은 다른 영역과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장소와 지역’의 내용을 다른 하위 영역으로 일부 재구조화하면서 하위 영역을 ‘지리 인식’,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의 4가지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2. 초·중학교

초·중학교의 지리 영역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배주경 외, 2019; 배주경 외, 2020; 주형미 외, 2020)와 FGI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관련 쟁점을 추출하고, 쟁점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지리 영역에서는 총 4개의 쟁점이, 중학교 지리 영역에서는 총 5개의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들은 교육과정에서의 배치 순서 조정, 학습량 및 난이도 조절, 교수학습 단계에서의 지원, 교과서 집필 등의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각론 개발 단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⁶⁾ 초·중학교 지리 영역 교육과정 개정 관련 쟁점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지리 영역의 노력과 별개로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

표 1. 사회교과군의 영역별 교과 역량

영역	교과 역량
지리	지리적 문해력, 공간적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능력, 글로벌 시민역량,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적 감수성
역사	내용 체계의 3차원 중 ‘과정·기능’ 부분에, 역사 학습에서 중요한 사고 및 탐구 과정을 ‘역사적 질문 생성, 정보 선택과 역사적 추론, 역사적 재현, 역사적 토론과 성찰’로 제시함. ※ 별도의 역사 영역 교과 역량은 제시하지 않음
일사	정보 활용 능력, 사회과학 탐구력, 합리적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도덕	현행 도덕과 교과 역량(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도덕적 사고 능력,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유지하되 수정 보완

표 2. 지리과 핵심역량과 그 의미

핵심역량	의미
1. 지리적 문해력	지역, 국가, 세계 규모에서 발생하는 지리적/공간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적/지리적 정보를 수집하여 지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통해 분석 또는 해석하고,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표화와 지도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능력
2. 공간적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력	지역, 국가, 세계 규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리적 쟁점 및 문제를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 원인과 현상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가장 나은 의견을 선택하는 능력
3. 글로벌 시민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다중스케일 차원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예, 공간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적 감수성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생태적 관계를 자각하고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표 3. 지리 영역의 템플릿 예시

[지식·이해]

영역	핵심 주제	초등학교		중학교
		3~4	5~6	1~3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기후환경 지형환경 자연-인간 상호작용	<핵심 주제 관련 내용 또는 일반화 진술문> 지표상에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 환경이 나타나며, 자연환경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장별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 모습 간의 관계 고장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 모습 간 관계, 고장의 생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기후 환경 세계의 기후 특성과 인간 생활 간 관계 국토의 지형 환경 국토의 자연재해와 대책 생활 안전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지역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온대 기후 지역 기후 환경 극복 자연재해 지역 산지지형 해안지형 우리나라 지형경관 열대 우림 지역의 생활 온대 지역의 생활 기후 환경 극복 산지 지역의 생활 해안 지역과 관광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과정·기능]

과정·기능	초등학교	중학교
질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를 이용하여 공간적 쟁점을 인식하고 질문을 제시하기 지리적 현상에 대한 탐구를 위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 과정을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와 그래픽을 이용하여 공간적 쟁점을 확인하고 탐구 주제를 설정하기 공간적 쟁점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지리적 질문을 제시하기 지리적 질문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공간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지를 계획하기
자료 및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탐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탐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유용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타당성, 신뢰성, 최신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선택하기
자료 및 정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정리하고 관점에 따라 분류 및 비교하기 지리적 탐구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합리성, 타당성, 신뢰성에 근거하여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 따라 관찰하고 유형별로 분류하기 공간적 쟁점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부분과 전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고 종합하기 공간적 쟁점 탐구를 위한 질문에 대하여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집된 자료를 비교, 대조, 평가하기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탐구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관찰, 비교, 분석하여 공간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기 공간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리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하기 분석된 자료에 근거하여 공간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평가하기 제시된 해결 방안을 분석, 비교, 평가, 검증을 통해 개선된 대안을 모색해보기
의사소통 및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이유 또는 증거에 기반하여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기 공간적 쟁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타인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의견 나누기 공간적 쟁점과 관련하여 제시된 해결 방안을 다양한 그림, 지도, 모형, 언어 등을 통해 직접 표현하거나 타인과 협업하여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쟁점과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의견을 나누기 공간적 쟁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나 가치 대립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공간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에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협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표 3. 지리 영역의 템플릿 예시 (계속)

[가치·태도]

가치 ·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적극적인 태도 기르기 • 국토 공간의 정체성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토관과 국토애를 함양하는 태도 기르기 • 세계의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과 공감하는 태도 기르기 •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적 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국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태도 기르기
---------------	---

표 4. 초·중학교 지리 영역 교육과정 개정 관련 쟁점

학교급	주요 쟁점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1. 초등학교 3~4학년군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의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의 어려움 • 쟁점 2. 학생중심의 참여 수업의 강화로 인한 ‘답사 및 조사활동’에 있어 학습량 적정성 제고 • 쟁점 3.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지역화 수업’을 위한 지원 체계의 강화 • 쟁점 4. 초등학교 5학년 ‘국토의 위치와 영역’ 관련 학습 내용 수준의 적정성 확보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1.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환경교육 및 생태전환교육 강화 필요 • 쟁점 2.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세계 시민성, 다중 시민성, 생태 시민성을 강화하는 내용 구성 필요 • 쟁점 3. 지리 영역의 일부 단원에서 교육내용의 수준 및 분량의 적정성 개선 필요 • 쟁점 4. ‘지역 간 상호작용’과 관련한 학습 내용의 학교급간 위계성 약화 • 쟁점 5. 중학교 사회과 과목 구성 체계의 논리성 제고를 통한 기본학습의 질 보장

한 주요 쟁점으로는 ‘쟁점 5. 중학교 사회과 과목 구성 체계의 논리성 제고를 통한 기본학습의 질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 사회의 과목 분리 및 교과서 분책, 교육과정 편제표가 개선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초등학교 사회는 지리/역사/일반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로 교과서가 개발되지만, 중학교 사회는 지리/일반사회로만 구성되어 있고 교과서는 ‘사회①’(지리+일반사회), ‘사회②’(일반사회+지리)로 지리와 일반사회가 반반씩 기계적으로 합쳐져 있다. 이 때문에 중학교 사회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비전공 영역을 가르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학교 사회를 지리와 일반사회로 과목을 분리하고, 교과서도 지리와 일반사회로 분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일반사회 영역에서도 동의하는 개선 방안이었다. 교육과정의 편제표는 초등학교에서는 ‘사회/도덕’, 중학교에서는 ‘사회(역사 포함)/도덕’,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역사/도덕 포함)’로 학교급별로 각기 다르게 표기되고 있어 편제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우며 엄연히 사회교과군의 중요한 한 영역인 지리를 편제표상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교육과정의 편제표 교과(군)에 ‘사회(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로 사회 4과를 모두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총론 주요 사항 발표 시 중학교 사회의 과목 분리와 교육과정 편제표의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준을 유지하였다. 교육부의 최종 의사결정 내용은 연구진과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명백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⁷⁾

3. 고등학교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성격을 유지하고, 추후 시안 개발 시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국가 사회적 요구 반영을 위해 성격 및 중단원 수준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과 연구진은 합의하였다. 통합사회는 기존과 같이 8학점을 유지하되, 학기 단위의 편성 및 미이수자 문제 등을 고려하여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로 과목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한국사 역시 기존의 6학점을 유지하고, ‘한국사 1, 한국사 2’로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지리 영역에서는 지리 관련 전국 단위의 4대 학회 및 전문 학회, 전국 단위의 지리교사 단체 14개가 모여 결

성한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이하 미지위)’ 소속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며 지리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선택 과목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선택 과목 축소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하였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지리 영역의 목소리를 내며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미지위와 함께 진행하였고, 실제 선택과목 개발 및 단위구성안 도출 등과 같은 실무적 차원의 연구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산하의 ‘지리교육과정위원회’와 함께 협업하였으며 ‘전국 지리교사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협의회를 진행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지리과 전공실과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였다. 2021.5.~10.까지 사회과 연구진의 회의는 총 17회, 지리 영역만으로는 총 38회의 회의(비공개 대책 회의 제외) 및 집중 작업을 통해 선택과목명을 선정하고 과목별 단위구성안을 개발하였다.⁸⁾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과목별 단위구성안은 지리 영역에서 개발한 각 과목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으로, 실제 교육과정의 각론 개발 단계에서는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더욱 다듬어지고 개선될 것이다.

일반선택 과목 축소 안은 일반사회 영역의 반대로 연

구 종료 이후까지도 사회과 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지리 영역 선택과목명에 대한 제안을 전국 단위의 지리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⁹⁾ KICE 지리과 전공실, 지리환경교육학회, 지리교사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과목명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고, 핵심 키워드별 과목의 성격과 제안 가능한 과목명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에 대해 소규모로 대학 및 고등학생의 선호도 설문조사, 진로진학교사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0개의 선택과목명을 선정하고 표 5와 같이 정책 연구진 합동 워크숍(2021.6.11.)에서 제안하였다.

이후 사회과 연구진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영역별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 포함 3개씩 균형 개발 및 일반선택 과목 축소 수만큼의 추가 개발이라는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리교사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앞서 제안한 10개의 과목명에 대한 선호도, 핵심 키워드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의 개요는 표 6과 같으며, 과목 및 키워드는 3개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이다.

표 5. 정책연구 합동 워크숍에서 제안된 지리 영역의 선택과목안

선택과목	과목명
진로선택	여행지리, 도시의 미래, 공간정보탐구, 문화콘텐츠와 지리, 글로벌 경제 공간
융합선택	지역문제탐구, 기후위기와 생태시민, 미디어와 공간, 음식과 지리, 지속가능한 세계

표 6. 지리 영역 선택과목명 및 키워드에 대한 학생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

조사 기간	2021. 6. 17. ~ 6. 22	
응답자 수	1,923명	
응답자 배경 변인	성별	여학생 52.8% / 남학생 47.2%
	학교급 및 학년	중3 10.5% / 고1 60% / 고2 10.8%
	거주지역	서울 16.1% / 경기 13.9% / 강원 13.4% / 제주 11.1% / 대구 9.9% / 충북 9.2%
과목명만 듣고 배우고 싶은 과목	- 상위 1순위 음식과 지리(41.7%), 2순위 여행 지리(36.4%), 3순위 도시의 미래(30.3%), 4순위 미디어와 공간(30.3%), 5순위 여행과 미디어 지리(27.4%) - 하위 1순위 공간 정보 탐구(9.6%), 2순위 지역 문제 탐구(16.3%), 3순위 지속가능한 세계(19.3%)	
진로를 강조했을 때 선택하고 싶은 과목	- 상위 1순위 미디어와 공간(32.5%), 2순위 도시의 미래(32.4%), 3순위 지속가능한 세계(29.3%), 4순위 글로벌 경제 공간(28.8%), 5순위 문화콘텐츠와 지리(28.4%) - 하위 1순위 공간 정보 탐구(17.5%), 2순위 음식과 지리(18.2%), 3순위 여행지리(20.3%)	
진로를 고려했을 때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	- 상위 1순위 미래(27.6%), 2순위 사회(23.3%), 3순위 미디어(23.1%), 4순위 경제(21.0%), 5순위 삶(20.9%) - 하위 1순위 GIS(3.3%), 2순위 생태시민(4.8%), 3순위 장소(5%), 4순위 지역(5.6%), 5순위 지리(6.8%)	

학생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거나 배우고 싶은 과목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과목을 개발하였다. 연구진은 내실 있는 과목, 배울 가치가 있는 과목 개발을 통해 고교학점제 하에서 지리교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공법으로 승부하고자 하였으며, 최대한 다양한 지리인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학계 및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개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고등학교 지리 선택과목 개발의 지향점은 첫째, 학교 지리를 통해 학생들이 꼭 배울 필요가 있는 기초 소양 및 학문 분야의 바탕이 되는 지리과목을 개발한다. 둘째, 학생의 진로 및 직업과 연계하여 배워둘 가치가 있는 지리과목을 개발한다. 셋째, 급변하는 미래 세계와 지구촌의 변화, 국가와 지역 공동체의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에 비추어 관심을 가져야만 할 주제를 다룬 지리과목을 개발한다. 넷째, 학생의 생활과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연결할 수 있는 지리과목을 개발한다. 다섯째, 지리가 싫은 학생까지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리과목을 개발한다.

이러한 개발 방향에 근거하여 지리 영역에서 새롭게

개발한 선택 과목은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생활 속 지리탐구’이며 기존 과목 중 ‘여행지리’를 유지하여 총 5개의 과목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고등학교 지리 선택과목 개발 절차의 개요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세계시민과 지리’는 지리교육과정위원회 및 미지위와의 협의를 거쳐 일반선택 과목으로 제안한 것이다. 기존의 세계지리 과목이 학생들에게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점을 고려하고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한국지리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세계시민교육 강화라는 국가교육과정의 어젠다를 포용하고,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민교육에 대한 타영역과의 경쟁도 고려하였다. ‘도시의 미래 탐구’는 과목명에 대한 학생의 기대와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 인문지리적 관점을 강조하며 진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목으로 개발하였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는 자연지리적 관점을 강조하는 과목이자, 진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이다. 기후 및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하는 국가교육과정의 어젠다를 포용하고,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필요성이 높아질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생활 속 지리탐구’는 자연지리와 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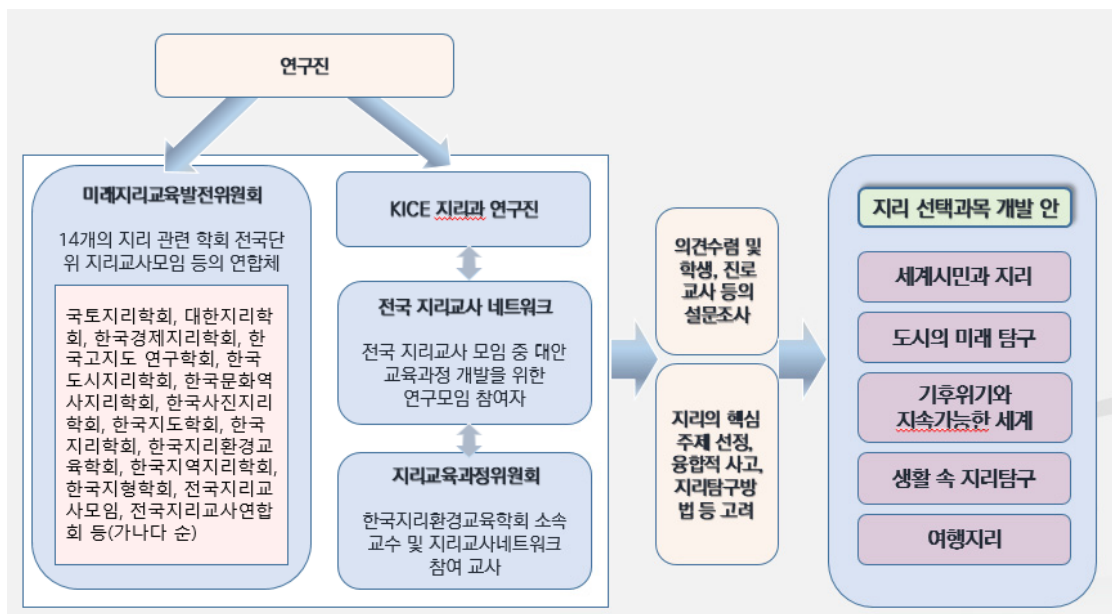


그림 2. 지리 영역의 선택과목 개발 절차의 개요

지리적 관점이 융합되어 있고 한국지리 삭제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면서 학생의 일상생활 속에서 관심도가 높은 말랑한 주제들을 지리 개념과 연결시켜 접근함으로써 지리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다소 파격적인 시도였다. ‘탐구’가 과목명에 붙은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대학 진학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일반선택과목 축소 요구를 고려하여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연구 초반에는 사회과 각 영역이 모두 축소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일반선택과목을 논외로 하고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각 영역별로 균형 개발한다는 합의 하에 선택과목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큰 흐름상 일반선택과목 유지안이 고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 영역별로 서로의 입장이나 의견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은 채 필요한 방식으로 학제나 현장과 소통한 것으로 안다. 지리 영역 연구진은 지리교육과정위원회 및 미지위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지리학계 및 현장의 대응 방안 및 일반선택과목 축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과목 개발을 병행하였다.¹⁰⁾ 일반선택과목 축소 요구가 각 교과들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자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와 일반선택과목은 3개 과목으로, 탐구교과 영역의 경우 4개 이내의 과목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2021. 7. 27.). 이 권고안에 대한 사회과 연구진과 교육부 회의(2021. 8. 13.)에서도 사회과 연구진 전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합의안 도출이 시급했던 만큼 교육부는 다시 연구진과 회의를 개최(2021. 8. 24.)하였고, 이 회의에서 지리, 역사, 도덕은 4개 감축안에 찬성 입장을 표방했으나, 일반사회는 반대하고 영역별 1개 감축안(지

리 1개, 역사 1개, 일반사회 2개, 도덕 1개)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사회과 연구진에게 위원회(2021. 9. 15.)에 참석하여 각 영역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4개 감축 유지를 권고하는 2차 권고문(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2021. 9. 15.)이 제시되었다. 2차 권고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는 영역별 1개 감축안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과 공청회는 무산될 뻔하다가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의 선택 영역을 밝히지 않은 채 개발한 과목에 대해서만 소개하며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21. 10. 8.에 개최된 사회과 공청회에서는 지리 5개, 역사 5개, 일반사회 6개, 도덕 5개의 선택과목안이 제안되었다.

한편 사회과 연구진 내에서의 논의와 달리 총론 공청회(2021. 10. 22.)에서는 지리 5개, 역사 5개, 일반사회 8개, 도덕 5개의 과목안이 제시되었고, 지난 2021. 11. 24. 교육부의 총론 주요사항 발표에서는 지리 5개, 역사 3개, 일반사회 7개, 도덕 4개 과목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리는 제안한 과목 수를 유지한 반면, 역사는 2개 과목이 줄어 3개 과목, 일반사회는 총론 안에서 1개 과목 감축된 7개 과목, 도덕은 1개 과목이 감축된 4개 과목으로 확정되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최종안은 표 7과 같으며, 연구진 제안과 교육부 발표안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지리 영역 연구진이 개발한 과목 중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는 제안한 안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반면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는 기후위기 대신 ‘기후변화’로 제목이 일부 변경되었고, 선택과목 영역은 진로에서 융합으로 변경되었다. 지리와 유사한 과목명을 제안했던 과학의 ‘기후위기와 환경생태’ 역시 기후위기가 ‘기후변화’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제안

표 7.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회교과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한국사 1, 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통합사회 1, 2		국제 관계의 이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표 8. 연구진이 제안한 지리 영역 선택과목과 교육부 발표안

선택과목	연구진 제안	교육부 발표안
일반선택	■ 세계시민과 지리	유지
	■ 도시의 미래 탐구	유지
진로선택	■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로 과목명 변경 융합선택 과목으로 이동
	■ 생활 속 지리탐구	‘한국지리 탐구’로 과목명 변경 진로선택 과목으로 이동
융합선택	■ 여행지리	유지

과 같이 융합선택 과목을 유지하였다. 연구진은 ‘여행지리’를 진로선택에서 융합선택으로 이동하고,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진로선택에 두자는 미지위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융합선택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가 되었다. ‘생활 속 지리탐구’는 ‘한국지리 탐구’로 과목명이 변경되고 융합선택에서 진로선택으로 선택과목 영역도 바뀌었다. 영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필요와 의견들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¹¹⁾ 표 7에 음영으로 표시된 ‘국제 관계의 이해’와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은 전문교과1의 국제 계열 과목을

보통교과로 재구조화한 과목으로 제시하였으나, 보통교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는 차별 없이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교과군 선택과목 구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IV. 향후의 과제

공식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지리 연구진은 3명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3명의 연구진은 지리학계와 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역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1 국제계열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지역의 이해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현대 세계의 변화 /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 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국제법 / 한국 사회의 이해 / 비교 문화 / 사회 탐구 방법 / 사회 과제 연구
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일반사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사회문제탐구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역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지리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일반사회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 국제 관계의 이해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도덕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그림 3.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교과군 선택과목 구성 비교

현장 등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비추고 담아내는 그릇일 뿐 모든 지리인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교과군을 구성하는 다른 영역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점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고, 연구 이외에 지리과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특정 영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유리한, 교육부 내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지리 영역 연구진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중 하나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몇 가지 주장을 초점화 하여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지리과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첫째는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의 영역별 균형 개발이었다. 교육부는 연구 시작 단계부터 일반사회 2개 과목, 지리·역사·도덕 각 1개 과목씩 5개로 축소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수능에서의 선택률을 고려하면 학교 지리의 소멸이 예견되는 안이었다. 끝까지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일반선택 4개의 균형을 만들어내었다. 두 번째는 일반선택 과목 이외의 선택과목에서도 균형 개발을 이루어내고 학교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목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어쩌면 많은 과목 수의 확보보다 학생들이 배울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목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과목 수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목표의 달성 여부는 구성원의 판단과 향후 현장에서의 적용이 그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각론 개발 단계에서 지리 교유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내실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중학교 사회를 지리와 일반사회로 과목을 분리하고 교과서도 분책하며,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이름을 찾는 것이었다. 과목 분리 및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지리 이름 찾기는 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 및 다른 과목과의 관계 등의 문제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남게 되었다. 교과서 분책은 각론 개발 및 이후의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등과 연계된 문제로, 교육과정 고시 전까지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지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지리인의 합심과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이루어내고자 노력했던 세 가지 목표 이외에,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가장 중

요한 소득은 연구진과 더불어 학계와 현장의 지리인 전체가 교육과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매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지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른 다양한 지리 관련 학회와 단체가 이번만큼 한 마음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고 지혜를 나누며 협업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리 공동체의 힘으로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학교 교육과 학계, 실생활에서 지리가 더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많은 힘을 보태주신 지리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주

- 1) 연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과 교육과정’이 아닌 ‘사회교과군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과 교육과정이 주로 지리, 일반사회, 역사만을 포함하는 반면, 사회교과군 교육과정은 여기에 도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2) 이 연구에는 총 13명(총괄 팀장 1인, 영역별(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 연구진 3명씩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리 영역 연구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대학 교수, 고등학교 지리 교사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과 이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 3) 이 장은 교육부(2021d)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 4) 지리 영역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진인 조철기가 워킹그룹으로 참여한 주형미 외(2021)의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리과의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주형미 외(2021)의 연구에서는 김민성(2014, 2020), 김민성·김현미(2021), 김선영(2019), 김현미(2013, 2014), 김현주(2013), 심승희·권정화(2014), 안영진(2021), 이경한(2013), 이민부·김결(2017), 이상균·정프랑수아메민느(2014), 임은진(2014, 2015), 조철기(2013) 등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지리과의 여러 과목에 설정된 핵심역량을 참고하여 대안적인 핵심역량을 선정한 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지리교육과정위원회 온라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리 역량을 지리적 문해력, 공간적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능력, 글로벌 시민역량,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적 감수성의 4가지로 도출하였다.
- 5) 내용 체계의 템플릿은 교육부의 정책연구로 수행된 온정덕 외(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의 양

- 식을 적용하여 예시를 개발하였고, 내용 체계 템플릿은 다른 교과 역시 온정덕 외(2021)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었다. 내용 체계 중 ‘과정·기능’은 주형미 외(2021)의 연구에서 개발한 지리과 ‘기능’의 초안을 바탕으로 내용 체계 템플릿의 특성에 맞게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 6) 쟁점의 주요 내용과 쟁점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조일 외(2021) 연구보고서의 pp.98~104(초등학교), pp.134~141(중학교)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공청회 자료집(차조일 외, 2021. 10. 8.)을 기준으로 쟁점을 제시하였다.
 - 7) 명백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과목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중학교 기술·가정 등과 같은 다른 영역과의 관계, 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에서의 교사 수급 문제, 사회과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총론의 입장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 8) 2021.5~10.사이 이루어진 사회과 연구진 회의 및 지리 영역 연구진 회의의 개최 일시와 주제, 참석자 등의 목록은 그 양이 많아 여기에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내용은 모두 기록하여 연구진이 보관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회의는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 녹화하였고, 그 녹화본을 가지고 있다. 일부 회의는 회의 직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계자와 공유하거나 기록으로 남겼고, 그 외 회의 및 연구 진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남기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 9) 지리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및 이사회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특별 세션을 운영하거나 이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련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한국지리학회(2021. 5. 29.),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2021. 6. 12.), 대한지리학회(2021. 6. 25.)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10) 이 연구와 관련하여 미지위와 연구 진행 상황 공유 및 지리과의 대응, 선택과목 재구조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는 총 3차례(1차 2021. 6. 1. 2차 2021. 7. 7., 3차 2021. 8.13.) 있었고 각 학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석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외 미지위의 실무진 및 지리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회의는 수시로 진행되었다.
 - 11) 교육부는 최종 발표안에 대해 연구진과 의사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만 할뿐 변경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1a, 2021년 교육과정 1차 정책연구진 합동 워크숍 자료집(2021. 4. 26.).
- 교육부, 2021b,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 2. 16.).
- 교육부, 2021c,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2021. 4.).
- 교육부, 2021d, 더 나은 미래를,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021, 11. 24.).
- 김민성, 2014,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교육과정 -핵심역량 관점에서의 해석과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 학회지, 22(1), 1-14.
- 김민성, 2020,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리교육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역량기반 관점에서의 접근”, 한국지리학회지, 9(3), 441-456.
- 김민성·김현미, 2021, “지리답사를 통한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 교사교육연구, 60(2), 213-226.
- 김선영, 2019, “싱가포르와 호주의 지리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역량 기반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대안적 방향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285-312.
- 김현미, 2013,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1);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16.
- 김현미, 2014,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2): 오스트레일리아의 핵심역량 기반 국가수준 지리 교육과정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33-43.
- 김현주, 2013,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1); 역량 기반 대안 지리 교육 과정의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45-59.
- 박병기·모경환·박형준·김민재·강수정·이경한·김대훈·김정인·문순창·김은미, 2021,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
- 배주경·김종윤·김상범·배화순·변희현·유금복·임윤진·조기희·장근주·박소영·이승미,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0-1.
- 배주경·김종윤·김상범·배화순·조윤동·김현정·조기희·장근주·박소영·이승미·김혜숙,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1.
- 심승희·권정화, 2014,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1); 영국의 개정 지리교육과정의 특징과 그 시사점”,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7-31.
- 안영진, 2021, “독일의 역량기반 지리 교육과정 및 교육표준에 관한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1), 92-107.

온정덕·김병연·박상준·방길환·백남진·이승미·이주연·한혜정, 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교육부.

이경환, 2013,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1); 뉴질랜드 지리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주요 특성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33-43.

이민부·김길, 201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리교육의 역량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3), 97-107.

이상균, 정프랑수아페민느(2014).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2): 최근 프랑스 지리 교육과정 개정 동향과 지리과 핵심역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45-56.

임은진, 2014,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2):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과 지리 교육과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15-32.

조영달, 2001, 교육과정의 정치학, 교육과학사.

조철기, 2013,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1): 캐나다 퀘벡 주 지리교육과정과 지리과의 핵심역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61-73.

주형미·박진용·김상범·김현미·변희현·임윤진·서지영·이경언·박소영·배주경, 2021,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1-6-1.

주형미·김종윤·배화순·변희현·유금복·서지영·장근주·박소영·배주경,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내용의 적정성 분석: 국어, 사회, 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0-6-1.

차조일·김혜숙·박주현·배화순·김상범·조철기·김병연·강선주·오정현·박형준·이영호·김민재·차승한, 2021,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1-21.

차조일·김혜숙·박주현·배화순·김상범·조철기·김병연·강선주·오정현·박형준·이영호·김민재·차승한, 2021. 10. 8.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 자료집.

접 수 일 : 2022. 01. 20

수 정 일 : 2022. 02. 16

게재확정일 : 2022. 02. 17

교신: 조철기,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ckcho@knu.ac.kr, 053-950-5857)

Correspondence: Chul-Ki Cho, ckcho@knu.ac.kr